



# 사회적 경제의 발견

2017. 05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적 경제의 발견

2017. 05

# Contents

목차

- 사회적 기업 의사결정 문화의 현실과 지향점 1
  - 공정무역을 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 9
    -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13
    - 열여덟번째 이야기 : ㈜거름 -
      - 신간서적 안내 17
  -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

# 사회적 기업 의사결정 문화의 현실과 지향점 「삶과 환경」

# 들어가며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이런 의사결정구조는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체의 구성명단이나 회의록 같은 자료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구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의 형성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구조의 형태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업 내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이다.



# 1. 「삶과 환경」은 어떤 기업인가?

「삶과 환경」은 2004년 자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사업 실패나 신용

불량 같은 경제적 문제를 안고 온 이들부터 공무원 출신, 전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한 이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삶과 환경」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부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순환체계구축과 실업 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올바른 폐기물 정책에의 시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2. 「삶과 환경」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

「삶과 환경」은 2005년 말에 직원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수집된 직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2006년 1월 대의원직을 만들었다. 이는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1년 임기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삶과 환경」 수거팀, 운전팀들을 대표하여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더불어, 경영위원회는 지역사회(충북실업극복사회단체협의회, 미래자원, 가사도우미 사회적 기업 우렁각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개인기업 구조를 벗어나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원 제도가 본래 시작된 목적과는 다르게 직원들 간, 현장과 경영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들이 일어났다. 결국 제 5차 대의원회의를 끝으로 대의원제도는 폐지되었다. 그 후에는 작업팀-팀장회의 같은 일반적인 업무조직구조를 통해서 현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위원회는 2008년 실업극복연대 등과의 협력관계가 끝이 나면서 사라졌고, 2007년 12월 법인 전환 이후 이사회가 결성되면서 경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직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달마다 팀장회의가 개최되고,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시에는 직원전체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들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안건들은 업무 조정과 관련된 것

들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기업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의사결정 구조에서 협력적인 분위기가 생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팀장회의가 팀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닌 팀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일 뿐인 것 같다고 사내 의사소통구조의 한계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다.

회의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는지 살피는 것보다도 사내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사항이다. 기 업 내 의사소통에 대해 어떤 사내 문화적 분위기가 생성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도 무엇보다 중 요하다. 또한, 기업 구조에서 결정하는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업 내 조직 문화나 가 치실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 3. 함께 일하는 동료들 - 갈등과 타협의 의사소통

힘든 노동을 하는 직업이고 무엇보다도 동료들끼리 팀을 짜서 협동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직원들 간의 갈등도 작업량의 배분이나 작업의 쉽고 어려움을 어떻게 적절하고 공정하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삶과 환경」은 4개 팀이 구성되어 작업하면서 6개월마다 팀원을 추첨으로 새로 뽑는다. 전체 세 개의 구역을 돌아가면서 작업하면서 3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이다. 이 경우 작업하기 쉬운 구역을 배정받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같은 팀 내에서도 수거원들 사이에서 작업을 공정하게 나누어 하면서 협력하는지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코스가 어쨌건 약간 힘든 코스가 있고 어려운 코스가 있으니까. 자기 일 없는데,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일하고 뭐 이런 문제들. 주로 많이 싸우는 게 그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한 두 사람이 쉬운 코스로 가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지. 한 팀에서도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쉽고 남아서 정리하며 뛰어다니는

사람은 힘든 거고.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짜증나는 거지. … 어쨌건 일을 더잘 아는 한 사람 껴서 일하는 거고. 오래된 사람 한두 명이 그 역할을 맡는 거야."

「삶과 환경」 7년차- 박영길

아무리 서로 배려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공정하고 작업을 배분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다 하더라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힘들고 피곤한 상태로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편한 것을 쫓는 것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또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서로를 이해하다보면 작은 오해나 불만도 대화로 풀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발생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자신만의 성향을가지게 된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러니 직원들은 조 추점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번호를 뽑는다.



" 사람이 성격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면 되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같이 대같이 대화를 해도 약간 안 맞는 게 있지. 일이 힘든 건, 일 때문에 생기는 것 도 있지만, 일 말고도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지. … 다들 사회 초년생 아니잖아. 직장생활을 할 만큼 하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자기 사람도 있고. 그렇다보니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의 생각을 수용할 수 부족한 거야. 일 자체가 힘든 노동이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다 생각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서로 배려하면서 ᄓ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같은 팀원이 힘들거 나 하면 도움을 살짝 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면 팀 내에서는 부담이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 ...."

「삶과 환경」 7년차-이상준

일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해진다. 「삶과 환경」은 현장 노동자들의 의사소통 구조로 한 달에 한번 팀장회의가 열리고 있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직원 전체회의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팀장 회의와 같은 공식 의사소통 기구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술자리와 같은 자리에서 팀원 간, 동료 간 나누는 대화와, 이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어떤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 내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팀장 회의에 올라갈 만큼 문제가 커지지는 않고, 팀 자체에서 논의를 해서 자잘한 이야기들을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팀들 간의 문제는 팀장들끼리의 문제나 직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팀장회의에 참석하는 팀장이 팀원들의 의사보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도 있고, 술자리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회적경제 법제화가 가능한가, 합의점이 있는가 여전히 의문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기준으로 양적 확대는 일정 정도 달성되었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핵심적 부분에서 주식회사 형태 사회적기업인 경우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경제의 건강성, 사회적 채임과 직결되는 바, 재무적 건전성과 동시에 사회적 건전성의 양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후자에 대한 보완 구조가 취약한 것이다. 「삶과 환경」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현실은 대표가 회의 전 한마디도 안 하기로 작심해 회의실로 들어가지만 정작 종사자들은 대표의 말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물론 타 업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민사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직 자체가 작은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유명무실화될 경우 또한 흔히찾아볼 수 있다. 소규모인 경우 중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에 관련된 사항을 대표가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삶과 환경」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현

장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직무자치'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3인 1조를 매번 제비뽑기로 정해 왔는데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제비뽑기 득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다시 제비뽑기로 수렴된 적이 있다. 이는 대표의 해태, 방임도 아니며 근로자의 부담스러움도 아닌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의 싹틈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또한 「삶과 환경」은 타 업체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 용기 딱지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거 여부를 확실히 가리기 때문에 민원이 수없이 들어온다. 밤, 새벽에 하는 일이라 주민 대면 접촉이 없는 업종인데 말이다.

우리는 지역주민으로서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그 정보도 평가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 현실을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제도와 기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뒷받침이 되는 사람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4. 「삶과 환경」의 발자취

2004.08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업체 입찰 준비 모임
2004.0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사업을 위한 준비위 구성

음식물류 폐기물 무섭 군인 위력사업을 위한 눈이쉬 구멍			
	참여단체명	역할	세부역할내용
	청주 자활후견기관	인력지원 사업진행	<ul><li>자활근로 인력지원</li><li>인력관리 및 상담</li><li>교육프로그램 진행</li></ul>
2004.10	충북 실업극복협의회	사업진행실 무	• 경영 및 마케팅담당 • 사업진행 총괄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부대사업진 행 사업진행	•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주민 음식물 감량화 정책홍보
	사회적 기업	장비 및	• 장비 및 기술자문
	미래지원	기술자문	• 가정폐기물관련 조사

2004.1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자 사업제안서 제출
2004.1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업체 선정
2004.12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업무 준비
2005.0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업무 시작
2005.04	현장 직원들의 근무 형태 변경
2005.04	청주시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관리방안마련 민관협의기구에 참여
2005.11	삶과환경 기업 구조 및 임금 복지체계 등에 대한 직원 면접 조사
2006.01	대의원제도 및 경영위원회 제도 도입
2006.01	페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포럼 결성에 참여
2006.05	대의원 제도의 폐지
2006.06	자원순환포럼과 청주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민관합동

정주시 음식을 패기물 수가 운반 업체와 자원순완포함의 간단회 수가 운반 업체와 자원순완포함의 간단회 2007.07 사직통 사무실에서 용입통 사무실로 이전 2007.04 노동조합 설립 및 노사항의 시작과 갈등 2007.07 자원순완포함 설치 토론회 개최 2007.10 살과환경 당당 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 시작 2007.12 세 3차 자원순완포함 토론회 2008.03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가운반 업무에 대한 주민과사 청구 2008.04 살업극복인대 동과의 이사회 관계 정산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북도 감사결과 발표 범인으로 전환 2008.11 범인으로 전환 2008.11 보인으로 전환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결성에 참여 2009.05 살업극복인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경락 살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1 김경락 살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가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연착 특별후가 산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가 위탁 개약 2년 연장 성과동 차고지 주변 탓발 작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2014.05 참조시 용식보 변경 대한 유발 수 1일 기관 대표 함께 2014.05 보이는 전환 경우 기관 기관 기관 대표 한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대원을 입한 범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물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상의 부탁 등의 이유로 고경략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용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01 청주시들 시국을 폐기물 등대 재계약을 맺은 방식에서 경쟁 입상의 부탁 등의 이유로 고경략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용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노동조합 설립 10주 시문 보안 대형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은 방식에서 경쟁 입찰(제작실시)로 개약생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일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10주 시문 보안 대형 입찰 대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속에(유기로 보안되는 기관 보안되는 전환적으로 인수있다. 제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속에 11명을 11명 11명기 1일 보안되는 단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입체 중 구익이 축소되어 절리에고 대산가 중 1인을 고용 손계하였다.		점검 실시
2007.02 사지동 사무실에서 용안동 사무실로 이전 2007.02 사지동 사무실에서 용안동 사무실로 이전 2007.04 노동조합 설립 및 노차합의 시작과 말등 2007.07 자원순완포럼 2차 토론의 개최 2007.10 삶과환경 달당 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 시작 2007.12 제 3차 자원순완포럼 토론회 2008.03 참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가운반 업무에 대한 주민과사 참구 2008.04 실업극복인대 등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8.06 참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북도 감사결과 발표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08.12 노동부 사회적기업 연증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발상에 참여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발상에 참여 2010.01 김경락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1 김경락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0 참조시 음식물 폐기물수가 온반 대행 재계약 2011.01 안장 특별휴가 신설 2012.01 안장 특별휴가 신설 2012.01 안장 특별휴가 신설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충연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충연 2014.01 2014.05 참조시장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참조시장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보지나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2014.07 보지나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준 이사도 사업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3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가 온반 대명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형업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은 진행하였다. 2014.11 참주시는 대형업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2014.11 1만경기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과관경 분회(연장 11명을 기업 가임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유지사)를 보장받지는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2014.11 1대명 1대명 가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삶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남작점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기·2동, 모충동, 수의동 분명통)를 낙할 받았다. 연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07.04 노동조합 설립 및 노사업의 시작과 발등 2007.07 자원순완포럼 2차 토론회 개최 2007.10 살과완강 담당 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 시작 2007.12 제 3차 자원순완포럼 토론회 2008.03 참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가문반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 참구 2008.04 실업극복연대 등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북도 감사결과 발표 2008.11 발인으로 전환 2009.12 노름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의 결성에 참여 2009.05 살압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경락 살과완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1 김경락 살과완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0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연장 특별합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장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설와등 차고지 주변 텃밭 직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산청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산청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산청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가업 개발비 산청 2014.06 도지사 표장 2014.07 청소시청 사회적기업 가업 개발비 산청 2014.08 원생물 폐기물 수가 유단 대명 입참 내시 체금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가 유반 대명 입참 내시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가 유반 대명 입합 내시 전수의 심목을 폐기물 수가 유반 대명 인접 가시 경쟁 입합(적기선사)로 제약하고 나라점단를 통해 인접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2014.11 건물 경관하고, 나라점단를 통해 인접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2014.11 전용 기명 가입기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약 상식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술계(유지)를 보잡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었다. 2014.12 살과완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국구역 낙합확점 2005년 사업소계 구구인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병 발생합나 안정필요인원 중 1인의 발생하여, 타	2006.11	
2007.10	2007.02	사직동 사무실에서 용암동 사무실로 이전
2007.10 살과환경 답당 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 사작 2007.12 제 3차 자원순환포럼 토론회 2008.03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요만 업무에 대한 주민과사 청구 2008.04 실업극복연대 등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북도 과사결과 발표 범인으로 전환 2008.11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결성에 참여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결성에 참여 2010.01 김생략 살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1 김생략 살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0 창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문반 대형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연장 특별유가 신설 2012.01 연장 특별유가 신설 2012.01 열장 통과지 주변 텃발 직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형계약을 입합받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개업상의 부분 등의 이유로 김생략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품 구축하였다. 2014.10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형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형업체 평기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과성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2014.11 남장 선국 공공은수노동조합 충복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연장 11명을 11명 가입기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기)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살과환경 일05년 사업호기 우란 말했다. 연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07.04	노동조합 설립 및 노사협의 시작과 갈등
2007.12 제 3차 자원순완포럼 토론회 2008.03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2008.04 실업국범인대 통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복도 감사결과 발표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08.12 노통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결성에 참여 2009.05 실업국복인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경락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연장 특별유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저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제임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개업식의 부탁 음의 이유로 김정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에서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실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1인주노출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복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연장 11명 기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속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삼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를 분쟁활정 일001년 전쟁 집원의 발생하여, 타	2007.07	자원순환포럼 2차 토론회 개최
2008.03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가운반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2008.04 실업극복연대 등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복도 감사결과 발표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08.12 노동부 사회적기업업의회 결성에 참여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회의회 결성에 참여 2009.03 실업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경막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험의회 이사 취임 2010.01 김경막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험의회 이사 취임 2010.05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가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산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산청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2 청구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3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4 당시청 기업 문학 등의 이유로, 김경막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준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에서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참(적격실사)로 제안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참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2014.11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송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상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개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동 분쟁통)을 낙잘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필원이 발생하여, 타	2007.10	<b>삶과환경 담당 구역 축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논의 시작</b>
2008.04 실업구복연대 등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복도 감사결과 발표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08.12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9.02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결성에 참여 2009.03 실업구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경막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가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급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보기 사업 기업	2007.12	제 3차 자윈순환포럼 토론회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복도 길사결과 발표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09.02 충복사회적기업 인증 2009.05 실업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길경락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문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2.07 도지사 표창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급 설립 및 출연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급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당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탁 등의 이유로, 길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3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작격실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모등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문수노동조합 충복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명중 1명 가인)가 설립되었다. 재제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상과환경 설립 10주년	2008.03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08.12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9.02 충복사회적기업협의회 결성에 참여 2009.05 실업극복면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경략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략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일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01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생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연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청파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환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등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08.04	실업극복연대 등과의 이사회 관계 청산
2009.02 충복사회적기업 인증 2009.05 실업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길경락 삶과완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장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중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업 설립 및 충연 2013.13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1 2014.05 원장의 부당 등의 이유로, 길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업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10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전격실사)로 제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완경 분회(연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었다. 2014.12 창과완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통, 사격1·2통, 모충통, 수곡1동 분평통)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필원이 발생하여, 타	2008.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관련 충청북도 감사결과 발표
2009.05 출복사회적기업협의회 결성에 참여 2009.05 실업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길쟁략 삶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81 성과통 차고지 주변 텃밭 직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급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당지사 표창 2014.06 도지사 표창 2014.06 도지사 표창 2014.07 설명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길광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3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3장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3장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3장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복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임)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상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통, 사직1·2통, 모충통, 수곡1동 분평통)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필원이 발생하여, 타	2008.11	법인으로 전환
2019.05 실업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0.01 김강락 삼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보장	2008.12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10.01 김명락 삼과환경 대표 충복사회적기업업의회 이사 취임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성망통 차고지 주변 텃밭    지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상의 부당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실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연장    1명중 11명 가임)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송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삼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통, 사직1·2통, 모충통, 수곡1통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09.02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결성에 참여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1 현장 특별후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생화동 차고지 주변 텃밭 직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앙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객실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복지역 평등지부 살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명 가입기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송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삼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통, 사직1·2통, 모충통, 수곡1동 분평통)을 낙찰 받았다. 연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09.05	실업극복연대의 사무실 이전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10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문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실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살과환경 분회(연장 11명중 11명 가입기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상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연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0.01	김경락 삶과환경 대표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취임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2.07 도지사 표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성화동 차고지 주변 텃밭	2010.06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수거 운반 대행 재계약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81 성와동 차고지 주변 텃밭 직원들에게 제공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전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전기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2014.09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10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연장 11명중 11명 가입기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2011.09	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3.11 충복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거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에서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송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삶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2.01	현장 특별휴가 신설
2013.11	2012.07	도지사 표창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1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탁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삼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귀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3.01	음식물 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 2년 연장
2014.05 청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2014.09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삼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3.봄	
2014.05 정주시청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신청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2014.09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실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복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상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3.11	충북 NGO 센터에 사회적기금 설립 및 출연
2014.05 2014.06 도지사 표창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2014.09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상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4.01	처조 [[처 ][하]저기]어 [[[어 기비비]] 시처
1인 주식회사로 변경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2014.05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입찰 개시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삶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4.06	도지사 표창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입찰(적격심사)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은 진행했다.  노동조합 설립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삶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개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4.09	대행계약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계약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 등의 이유로, 김경락 대표가 회사의 주식 지분을 100%로 인수하여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기존 이사도 사임하고 대표이사 1인
2014.11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 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현장 11명중 11명 가입)가 설립되었다. 재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고용승계(유지)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적 목적이 주요한 이유였다.  2014.12 삶과환경 설립 10주년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개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4.10	청주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경쟁
청주시 3구역 낙찰확정 2005년 사업초기 수ዝ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4.11	
2014.12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4.12	<b>삶과환경 설립 10주년</b>
	2014.12	2005년 사업초기 수거업무를 진행했던 3구역(중앙동,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동 분평동)을 낙찰 받았다. 현장필요인원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하여, 타

2015.01	삶과환경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전체 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10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2015.02	급여체계 변동 기존급여체계를 폐지하고 시청원가산정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구성항목 등을 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차량정비수당을 신설하여, 정비담당자(운전원)에게 지급하였다.
2015.10	직무자치제 논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장운영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직무자치제 논의 개시
2016.01	조도형 부장 퇴사 직무자치제 시행과정에서 기존 현장총괄책임자와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퇴사
2016.05	퇴직연금 제도변경 D/C방식에서 D/B 방식으로 변경
2016.06	신규이사 선임 및 단체협약 체결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조건(이사3인상)에 따라 사내이사 김병균(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염우(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신규 선임, 충북 평등지부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
2016.07	물가변동 반영 대행용역비용 인상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품목 조정율 상승에 따라 용역비용 인상 적용, 이에 따라 직접노무비(인건비) 약 3% 인상
2016.10	차기년도 입찰 개시 기존 8개 권역을 유지한 채 7,8구역(구 청원군)의 수거 범위를 확장(기존 : 아파트, 추가 :읍면 소재지)하여 입찰 개시
2016,12	청주시 4구역 낙찰확정 기존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4구역(내덕 1·2동, 운천·신봉동, 강서1동, 봉명 1·2동)을 낙찰
2017.03	전용 수거차량 구입 차량노후화(2005년 식)로 인해 신차 구입
2017.04	노동조합 2기 집행부 구성

# <참고 문헌>

삶과환경. (2014). 「삶과환경 10년 기념책자」. 2017년 제2차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삶과환경 김경락 대표 발표 내용.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괄'

지난 4월 5일 서울혁신센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오픈 기념 강연이 열렸다. 본 강연은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를 오픈특강으로 '사회적경제와 SDG' 개괄',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현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다음은 본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네모토마사쯔구가 강연에 참석하여 요약한 자료이다.

[오픈특강]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 정태인(칼폴라니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발제 1] 사회적경제와 SDGs 개괄 ..... 로렌스곽(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장)

[ 발제 1 ]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정책 ..... 김성도(한국국제협력단 혁신사업실과장)

[발제 1]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현장 ..... 한수정(아름다운커피 사무처장)





# 1.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 1) 한국 경제

-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
- 96년에서 97년에 거의 모든 경제 통계에서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
- 사회적 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되면 문제될 수 있음

### 2) 사회적 경제

- 신뢰와 협동이 사회적 경제의 기반
- 캐나다 칼폴라니 연구소장이 다원적 경제 제기
-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 3) 국제적 관점

- 미신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존재할 수 있음(일제 하 식림정책과 미신의 관계)
- 투명성 지수와 신뢰성 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협동 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음
- 상호성은 협동의 원천

# 2. 사회적 경제와 SDGs 개괄

# 1) SDGs

- 유럽은 사회적 연대(Solidarity)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SDGs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SDGs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와 동시에 SDGs의 로컬라이즈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포괄적 정치과정임

### 2) 사회적 경제와 SDGs

- SDGs 17개 항목 중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와 연관성이 있음
- 서울 자치구청장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 유무를 지도 상에 나타내면 강남 지역에 공약 없음 으로 나타남
-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고 인간관계, 국가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이미 시도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영역이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실감(부동산 불안, 청년 실업, 소등 양극화 등에 대한 기여)이 약하기 때

문에 정치적 변화 유도와 인재 육성이 필요함

# 3. 사회적 경제와 국제개발정책

# 1) 사회적경제와 국재개발협력의 접점에 대한 고민

- 사회적 경제와 국재개발협력의 접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공정무역부터 머리에 떠올랐음

# 2) MDGs와 SDGs의 차이

- BPO(Bottom of Pyramid)에 대한 비즈니스 퍼슨적 관점이 중요함
- 적정기술보다 혁신기술이 중요함, 예컨대 정수 기능이 있는 빨대를 더러운 물에 꽂아 마실 것인가, 누구나 유명한 커피 가게의 예쁜 컵으로 물을 마시고 싶을 것으로 지역특성보다 시 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
- 이전 MDGs는 전통적 식민 지배국의 기부 구조 때문에 이회적, 자립, 공조가 부족해 실패하였음

### 3) SDGs과 혁신기술

- SDGs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중첩적 영역을 중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 혁신(3D Printer 등), ICT(제4차 산업혁명, 한국은 특히 AI 분야), 기술 은행과 같은 존재를 중시함
- More from less for more People (과학기술 혁신을 공공재로 변환, 예컨대 Odón device)

# 4. 사회적 경제와 국재개발협력

# 1) 개발도상국의 특징과 사회적 경제의 문제해결 방법

- 개발도상국일수록 농수산업 비중이 크고 비공식 경제 영역이 넓음
- 이 비공식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문제해결 방식이 유용함
- 3 가지 방법: 사회적 자본 확충형, 사회적 약자 조직형, 문제해결을 위한 비즈니스형
- '그라민 뱅크'는 아시아에서 성과를 올렸으나 아프라카에서는 은행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그 반성에 의해 P2P 방식으로 '키바' 사업이 시작되었음

# 2)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고려

- 사회적 경제를 자칭하지는 않으나 파타고니아, 비디샵, GAP 투어 등은 같은 역할을 함

- 네팔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협동조합 실패 경험이 남아 있어 이 때문에 보수적 면이 있음
- 한국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시 붉은 티셔츠를 모아 보내기도 하였으나 그 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까지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는 무엇인가를 해 주면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까지 상상이 필요한 시점임

# 5. 소감

KOICA 직원이 '사회적 경제와 국재개발협력의 접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공정무역부터 머리에 떠올랐다'고 언급하였음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양자 간에 대한 논의는 필요성 확인 및 공감 단계에 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형식에 대한 비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한 정부 주도적이라는 비판,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 등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이면서도 알기 쉽고 내실이 있는 접점 구조와 기능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사회적 경제 경험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또한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 - 열녀덟번째 이야기 -

# (주)거름

주식회사 거름은 생태공원 시설 및 조경 관리를 시작으로 눈으로만 보는 조경을 넘어 생물종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경으로 야생동식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내 녹색 공간을 만들어, 기후변화시대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막고 지친 도시인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생태조경사업을 들 수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종합개발계획, 마을컨설팅, 지역역량강화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외에 농촌현장포럼, 예비계획수립 등을 하고 있으며, 생태조경사업으로는 환경복원 설계 및 시공과 생태교육장관리 및 운영, 생태적 녹지조성 및 관리 외에 생태 조경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거름, http://blog.naver.com/sevaragy)

# Q. 거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거름은 지역 개발 컨설팅 전문 회사입니다. 마을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분들과 함께 마을의 꿈을 그리는, 꿈을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지금은 농촌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그 분들과 함께 포럼,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도시 지역으로도 사업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Q.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면 그게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에게 진정으로 따듯하게 대하다보면 그것이 하나의 씨를 뿌리는 거고 그걸로 이어서 일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따듯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촌시골마을이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취약한 마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게 진심을 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Q.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회적기업의 장점, 단점, 한계 등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사회적 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사회적 기업의 견지는 고객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쏟아 부을 수 있는 심신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의 똑같은 교육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일단 마을을 염두에 두고 마을을 우선에 두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기획을 한다는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Q.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위기는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직원들 월급 줄 때에요. 초창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직원들 월급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1년 반을 전 화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다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월급 단 하루도 밀려본 적이 없어 요. 초창기에 그거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게 투자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면허내고 그러다보니까 조경 쪽으로도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개발사업도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데 정말 운 좋게 진입을 했어요. 한번 진입을 하니까 일

은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위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불러일 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Q. 현재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으며 어떤 일이었는지요?

"마을에서 감사패 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덕분에 이런 마을사업도 몰랐는데 마을 사업도 알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마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 이라는 게, 사업을 마음껏 구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왔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 Q.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사항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희망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자주 이뤄지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저도 많이 참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모임들이 다양화되고 자주 이뤄져야 상대를 또 알게 되고 알게 된 상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할 수는 거니깐 그런 기회들이 좀 잦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Q. 지자체 혹은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자체의 인식구조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뭐 특별하게 바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따로 하나 있다면 워낙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직접 경비들이 많다보니깐 단기자금이라도 파이낸싱이 여유있게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받아놓은 계약서가지고도 대출 같은 것도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파이낸싱 정책들이 조금은 유연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Q.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 탁드립니다.

"좀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일 잘하는데 평점 신용점이 0.5점이 가점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일을 일로써 끝내버리면 일반 기업과 차별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자긍심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업종구분	지역형/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주요 서비스	(지역개발) 마을컨설팅, 지역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생태조경) 생태적 녹지조성 및 관리, 생태조경 컨설팅	
거름	연혁	(설립)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 2013년 11월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84번길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evaragy	



# 신간서적 안내

#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문예술판사(발행일: 2017, 5, 4,)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정글 자본주의화 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서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를 찾다!

- 문재인 대선 공약의 '사회적 경제 활성 화'의 중요성을 알려줄 책!

# 저자

# 우석훈

#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되가난하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 작성은 이무도 돕지 않을 때. 자회적 경제가 필요하다! 제대에서 하여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 등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 등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 등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 등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 등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 등 하는 등 보내에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를 하는 등 보내에 하는 등 보다 시하여 현재 중에는 보내에 이를 하는 등 보내에 이를 하는 되었다.

### 목차

제1장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짧은 스케치들 제2장 인물로 보는 사회적 경제

제3장 정글 자본주의와 경제 휴머니즘

제4장 공유지 비즈니스

# 출판사 서평

# 1. 사회적 경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2011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고은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도리어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고 불행한 삶을 근근이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멀쩡한 삶을 살아가던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점점 깊어지는 불황의 늪으로 인해,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다. 한국 경제가 점점 불황으로 진입할수록 국가의 복지 정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제의 공식 부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다.

《88만원 세대》, 《불황 10년》 등 한국 사회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통찰해온 경제학자 우석훈은 신간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에서 바로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고민되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던 19세기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생겼듯이, 한국 경제가 정글 자본주의화 되는 이 시점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무솔리니가 집권한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국가를 운용하는 기본 조직으로 고민되었듯이, 또한 스위스의 대표적인보수 도시 취리이에서 사회적 경제가 꽃을 피우고 있듯이, 사회적 경제는 좌파와 우파라는 오랜 정치적·경제적 경계를 넘어 고민되어야 한다. 저자 우석훈은 가난한 사람이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지역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 부드럽고 온근하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밝힌다.

# 2. '사회적 경제=좌파 정책?':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를 자신과 거리가 먼,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사회적 경제는 좌파들의 경제 정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

는 사람도 많다. 우석훈은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우석훈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에 빗대 설명한다. 도서관은 보수적인 사람도, 혹은 진보적인 사람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을 때일수록 개인이 책을 사기 힘들어져 도서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처럼, 불황기일수록 해결책을 '사회적인 것', '공유'에서 찾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해진다.

파시스트 정치가 무솔리니가 대공항에 빠진 이탈리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고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활' 정책과 '생활협동조합법'을 자리 잡게 함으로써 기초를 세웠다. '생산적 복지'라는 당시 유행하던 정책의 흐름을 따라간 '자활' 정책들은 지역 자치 구조가 약했던 한국에서 지역에 근거를 둔 조직이 태어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생활협동조합법은 대기업이 아닌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경제에 참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 싹을 틔운 사회적 경제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통해 성장해왔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손학규 의원이 주도해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 정의당까지 '사회적 경제' 법안을 내놓았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좌초되고 만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회적 경제가정글 자본주의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서민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 3. 정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방법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L자형 공황'이라 부른다. L자형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많은 경우 가족들도 같이 어려워진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수밖에 없다. 가령 급작스러운 실업으로 자영업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보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차린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 우석훈은 일단 창업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

에 속한 경제단체들의 문을 두드려보라고 말한다. 회사에서 실직했다고 누구나 꼭 자영 업을 하고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속한 마을기업 등에 서 자영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재취업 인력에 대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다. 중산층 실업자가 스스로 자 신의 길을 찾아가기 전까지 1~2년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기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국 민경제라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경제 인프라이기도 하고, 사회 안전판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이 불황에 돌입하는 나라라면 더욱 더 사회적 경 제가 필요하다.

# 4. 사회적 경제? 공익을 위한 경제학

사회적 경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궁유하는 것, 즉 궁유지와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주택 협동조합의 예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아파트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개인이 집을 구하는데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몇 억이 든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의 궁유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서 아파트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들이 힘을 얻는다(본문 213쪽). 소규모 코하우징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 육아, 교육, 문화 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것들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운영하며, 의료협동조합 등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력하거나 결합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꽃피려면 지역 단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 고베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지역 경제의 근간이 협동조합을 통해 움직이고 더 나아가 지역 자체를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네 구청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본문 225쪽). 현재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는 에너지 산업(본문 242쪽) 과 로컬푸드(본문 257쪽) 사업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 등 에너지 산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식품 시장을 재구성하자는 로컬푸드 사업도 사회적 경제가 생활 밀착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

표적인 사례이다.

# 5.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적의 입문서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를 집필하며 저자 우석훈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선입감을 없애는 것이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개념인 사회적 경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은 물론 역사적 흐름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또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한국과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한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 현황을 표로 정리해 실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정리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출처: 알라딘 인터넷 문고 http://www.aladin.co.kr>

# 사회과학연구소

\* 본 저서는 201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15S1A5B8046954)

2017年 5月 31日 인쇄

2017年 5月 31日 발행

發行人 최영출

編輯人 사회과학연구소

發行處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